

우리들의 모습

예신 겨울 캠프

예비신학생 기본교리



1월 24일(토) - 25일(주일) 예비신학생 겨울 캠프가 있었습니다. 19명의 예비신학생과 초등부 성소자, 신학생들이 모여 봉화 분천산타마을 일대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춘양성당 신자들과 주일미사를 함께 봉헌하였습니다. 특히, 미사 중 특송을 준비하여 하느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비신학생들과 초등부 성소자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2월 22일 베드로

대신 학생 - 이상헌 (태화동, 학부2)

성당 꼭대기의 '닭'

가끔 성당 종탑 위에 '닭' 모양의 장식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닭은 오래전부터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동물로 알려졌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가장 먼저 닭이 우리에게 그 소식을 알려 줄 거라 생각해서 닭 모양의 장식을 성당 맨 꼭대기에 달았다고 해요.

신약성경에서 닭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에 경종을 울리는 동물로 소개되지요.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게 붙잡히시기 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마르 14,29)라고 굳게 다짐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마르 14,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함께 있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예수님을 뒤따랐던 베드로 사도 역시 도망쳤어요. 주위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마르 14,67)하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마르 14,71)라고 하면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땀지요.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닭이 울었어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오늘도 성당 꼭대기에 있는 닭은 우리의 믿음이 강한지 묻습니다 :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느냐?"

예신생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래요. 안녕~

기억해요!

1. 대신학교 수직식 및 입학식

- 일 자 : 2월 28일(토) / 3월 1일(주일)
- 장 소 : 대구 신학교 남산동 대성당
- 대 상 : 독서직 - 김기섭 요셉(구담 본당)
신입생 - 손동일 T.아퀴나스(점촌동 본당)
김태영 사도 요한(개운동 본당)

* 교구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주세요.

2026년 2월

예비신학생 편지



<예비신학생 겨울 캠프 - 봉화 분천산타마을>



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

예신생과 나누는 성인(聖人) 이야기

- 성 발렌티노 (226년 ~ 269년. 축일 2월 14일) -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라는 건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날이 천주교 성인 '성 발렌티노'의 이름을 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나요?

옛날 로마 박해시기에 살았던 발렌티노 성인은 평소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줬습니다. 당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못하게 금혼령을 내렸는데요. 발렌티노 성인은 비밀리에 연인들의 결혼식을 주례해 주다가 체포되어 순교합니다.

발렌티노 성인이 연인들을 위해 몰래 결혼식을 주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14세기경부터 발렌티노 성인의 축일인 2월 14일에 연인들은 편지나 카드를 주고 받으면서 성인께 전구기도를 바쳤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상업적인 영향으로 2월 14일을 '발렌타인데이'로 부르면서 초콜릿을 선물하는 풍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발렌티노 성인이 연인들을 축복한 일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분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헌신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우리 예신생 친구들도 하느님의 빛으로 자신과 이웃을 비추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기로 해요.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느님입니다. 그를 믿으면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권력도 커질 것이고 적에게 승리도 거둘 것입니다.

- 성 발렌티노와 황제 클라우디우스와의 대화 중에서 -

출처 : cpbc 플러스. <모두의 세례명>

신학생으로부터~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민우 테오필로 부제입니다.

이번 예신생 편지는 길지는 않지만, 지난 한 달 동안 부제로 살아보며 느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지난 1월 11일 부제품을 받고 어느덧 한 달이 되어 갑니다. 부제품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이 직무를 받아도 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컸지만, 그 순간 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사랑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 속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고, 하느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심도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본당에서는 복음 봉독과 강론, 봉성체 등 아직은 서툴지만 부제가 맡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한 번쯤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 건 아닐까?',

'부르심은 느껴지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네.'

이런 고민이 들 때에는 조용히 성당에 앉아 기도해 보세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으니까요.

하느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분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봉화 본당
이민우 테오필로 부제

난 도 리 - 백종현 페르디난도



...d ARUDO